

# 식민도시 부산과 유곽\*

- 『관문매석신문』과 부산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

임상민\*\*  
y3k76@hanmail.net

## <目次>

1. 들어가며
2. 1916년 경무총감부령과 부산의 ‘접객업’
3. 유곽과 카페, 그리고 재편되는 유흥문화
4. 『관문매석신문』과 부산 유흥문화 표상
5. 나오며

主題語: 관문매석신문(Gwanmun Maeseok Newspaper), 서일본(West Japan), 유곽(Red-light district), 카페(Cafe), 유흥문화(Entertainment culture), 모더니즘(Modernism)

##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 해양도시 부산과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인적·물적 이동과 이민족·이문화 간의 접촉/갈등/교섭의 변용 과정, 특히 1930년 전후의 카페 문화(모더니즘) 수용과 부산 유곽 문화의 변용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으로서의 해양도시 부산은 중앙(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지만 외부 세계와의 접촉의 최전선이며, 중앙과는 다른 독자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국가를 둘러싼 변화가 직격하는 내셔널과 트랜스내셔널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 미디어 연구는 주로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과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어로 발행한 기관지 『경성일보』와 조선어 신문 『매일신보』, 그리고 조선인이 경영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식민지 조선의 신문 미디어 연구의 기초 토대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 ‘내지’에서 발행되어 조선 ‘외지’로 배포된 신문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까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5658)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일본어학과 조교수

지 한국 연구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시각이다. 또한, 조선에서 유통된 일본어 신문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대부분이 1910년 한일합병 이후의 일제강점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선 근대 초기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서일본 지역에서 발행되어 부산 경남지역으로 배포된 신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누락되고 배제되어 왔다.

예를 들면,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일본 지역에서 발행되어 부산 경남지역으로 배포된 신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후쿠오카일일신문(福岡日日新聞)』(1877년), 『바칸물가일보(馬関物価日報)』(1880년, 1911년에 『関門日日新聞』으로 제호 변경), 『관부마이니치(関釜毎日)』(창간, 미상), 『관문호치(関門報知)』(1923년), 『관문매석신문(関門毎夕新聞)』(1929년) 등의 신문들은 조선 근대기부터 적극적으로 조선 지역까지 판매망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이는 국가 간 관계와 동일시하거나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것이 아닌 지역과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인식과 경험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대 이후 부산의 유곽 및 접객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1930년 전후로 서일본 지역에서 부산으로의 인적 이동을 통해서 이식된 모더니즘, 즉 카페 문화의 수용 과정 속에서 부산의 유곽 문화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1916년 경무총감부령과 부산의 ‘접객업’

먼저, 1920년 전후의 부산의 유곽 및 특별요리점, 일반요리점 등과 같은 유흥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염상섭의 『만세전』에 주목해 보도록 하자. 『만세전』은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대일보』에 연재되었는데,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918년 겨울, ‘동경 W대학 문과’에 유학 중인 주인공 이인화는 조선 경성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급하게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3·1운동 이전의 식민지 조선의 어두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여행소설이다. 특히 주인공 이인화가 조선으로 귀성하는 코스를 살펴보면, 도쿄에서 출발해서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 대전, 경성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마침내 일본 제국 하에 놓인 식민지 조선의 암흑의 ‘공동묘지’로 인식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인화는 관부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이후, 기차 시간까지 ‘서너 시간’ 남아 부산 ‘시가’를 구경하기로 결심한다.

쓸쓸한 거리를 이리저리 돌다가 그 여인숙이란 데를 한 집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불쑥 났으나, 차시간이 무서워서 발길을 돌렸다. 다시 큰길로 빠져나와서 정거장으로 향하다가, 그래도 상밥 파는 데라도 있으려니 하고 이 골목 저 골목 닦치는 대로 들어가 보았다. (중략)나는, 그리 늦을 것은 없으나 쓸쓸한 찬바람이 도는 큰길을 헤매기가 싫어서 단념하고 돌아서는 길에, 어떤 일본 국숫집 문간에서 젊은 계집이 아침 소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안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우뚝 섰다. 이때까지 혼자 분개하고 혼자 주주하던 생각은 감쪽같이 스러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걷어 올린 옷자락 밑에 늘어진 빨간 ‘코시마키’하고 그 아래로 하얗게 나타난 추울 듯한 토실토실한 종아리다.

“어서 오세요”

모가지에만 분땀이 허영게 더께가 앉은 감승한 상을 쳐들며 언제 본 사람이라고 나를 반갑게 맞는다. 뒤를 이어서

“어서 오십쇼, 들어옵쇼.”

하고 줄레줄레 나와서 맞아들이는 계집애가 서넛은 되었다. 이러한 조그만한 집에 젊은 계집이 네다섯씩이나 있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조다. 나는 걸려드나 보다 하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더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 삼아 이층으로 올라가서, 인도하는 대로 너저분한 다다미방에 들어 앉았다.<sup>1)</sup>

관부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주인공 이인화가 기차 시간이 ‘서너 시간’ 남아 부산 ‘시가를 구경하다가 들어간 가게는 다름 아닌 ‘일본 국숫집’이다. 당시 ‘국숫집’은 일반요리점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곳에서의 매춘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만세전』이 소설 속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18년’보다 2년 빠른 1916년에 제정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에서는 예기(芸妓)와 작부(酌婦), 창기(娼妓)를 따로 독립시키고 있고, 예기는 예기 치옥(置屋)에 속하여 요리점에서 부를 때 나가서 영업을 하되 손님을 예기 치옥이나 자택에 유인하여 매음하면 안 되며, 창기는 매춘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대좌부(貸座敷)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좌부 밖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동시대에 적용되고 있었던 경무총감부령을 경유하면서 소설 속 주인공 이인화에 주목해 보면, ‘걸려드나 보다 하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더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 삼아’ 들어간 ‘일본 국숫집’은 일반요리점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조그만한 집에 젊은 계집이 네다섯씩이나 있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조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매춘이 가능한 ‘특별요리점’이다. 특히, 여종업원은 주인공에게 ‘꺽지에서 매우 궁하신 모양이군요. 글썸.....’

1) 임상섭(2008) 『만세전』 열림원, pp.173-178

실권 한턱내신다면..... 히히히.’(185쪽)라고 은밀하게 말을 던지고 있듯이, 주인공의 ‘더러운 호기심’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공창(유곽)밖에 존재하는 사창(작부=창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1920년대 식민도시 부산의 공창과 사창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하나의 유흥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창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전성현은 지금까지의 일제강점기 유곽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성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곽과 관련된 공창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공창제의 도입과정과 전개, 폐창운동, 성병과 관리통제, 그리고 ‘매춘업’과 유곽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공창제로서의 유곽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경성에 집중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공간 지리학적 관점에서 도시사 또는 도시문화(유흥문화)로 다루어졌다. 그 외 개항장 도시로서 부산, 인천, 군산의 유곽에 관한 연구가 소수이지만 각각 이루어졌다. 인천과 군산의 경우도 경성과 유사하게 식민도시 형성과 관련된 군산 유곽의 의미에 관한 연구였다.<sup>2)</sup>

또한, 김형열 역시 “현재까지 남아있는 집창촌 중 일부는 일본 유곽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일본 식민권력이 식민지에 대한 사회통제와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식과 이질적 혼종문화의 혼적으로서 남아 있다. 이처럼 일본 고유의 사회문화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다른 지역에 이식되는 경우는 비단 식민지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경우처럼 국가적으로 병합하여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계의 거류지에서, 또는 군사적 침략을 통해 확보한 점령지에서는 어김없이 여행의 풍류와 군대 사기의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매춘 업소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유곽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곽과 같은 조직과 시설을 본뜬 업소에서 예외 없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창기들이 공창이라는 합법화된 통제장치 속에서 성매매를 진행하였다”<sup>3)</sup>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까지의 유곽 및 접객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시기적으로는 조선 근대 및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반까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해 왔다.

그리고 유곽 연구의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근대 초기 개항장 또는 조계지가 존재했던 경성, 부산, 인천, 군산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유곽의 형성 과정 및 공창과 폐창운동, 성병 관리통제 등의 문제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다만, 1920년대 이후 유곽의

2) 전성현(2018) 「일제강점기 부산 유곽의 실태와 일본군과의 관련성」『역사와 경제』, pp.241-242

3) 김형열(2021) 「近代 일본 식민도시의 遊郭 형성과 娼妓業」『일본근대학연구』, p.224

변용 과정 및 유곽을 둘러싼 부산과 서일본 지역의 관계성, 또한 유곽 등의 유흥문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모더니즘(모던질), 카페, 댄스, 음악 등의 대중문화와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이 누락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3. 유곽과 카페, 그리고 재편되는 유흥문화

다음으로, 근대기 및 일제강점기의 해양도시 부산의 유곽 관련 법령을 개괄하고, 부산 지역 신문의 유곽 및 카페 등과 같은 접객업 관련 기사를 추적하면서 1930년 전후로 유흥문화가 재편되는 과정과 서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발행되어 부산으로 배포된 『관문매석신문』은 부산의 유곽 및 카페 등과 같은 유흥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해양도시 부산의 유곽 관련 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1876년 부산 초량왜관 11만평에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 설정, 1881년 매춘업 증가에 따라 일본 영사관은 <대좌부영업규칙><예창기단속규칙><매병원규칙><매검사규칙> 제정해 영업 구역 한정·성별 검사(주 1회, 일본은 매월 2회)를 의무화한다.

또한, 1882년 <대좌부 및 예창기포달>을 통해 매춘업자 및 예창기에게 세금(月費金)을 과세하기 시작했고(예창기[鑑札] 영업은 경찰서 통해 영사관 허가. 당시 인천과 경성의 경우에는 매춘업 자체를 금지), 1900년에는 <요리점및음식점영업단속규칙><예기영업및단속규칙>, 1902년에는 부산 일본영사관은 일본거류지 관외 지역인 부평정 2정목(현재, 부평동 시장 부근 죽발 골목)에 특별요리점의 영업을 허가한다(이후, 같은 해 총 7개 요리점 개업. 1905년에는 요리점이 17호로 증가. 예기 177명, 나카이 55명). 이후, 1905년 자유도항령이 발령되고, 1912년 1월에는 녹정(綠町=마도리마치) 유곽이 설립되었으며(1914년 조합 성립), 1916년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4곳(녹정, 목도(영도) 2곳, 초량)이 유곽으로 지정된다.

조선 근대 초기, 부산에 유곽이 최초로 설립된 배경에는 부산에 이주한 재조일본인의 남녀 별 분포와 부산의 기반 산업과 관련이 깊는데, 예를 들면 개항 초기에는 각종 토목 및 건설사업 등과 같이 도시 기반 구축 분야에 종사하는 일본인 남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1881년 남성 1,029명, 여성 850명)<sup>4)</sup> 하지만, 1930년 전후부터는 여성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남녀 분포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1938년부터 부산 거주 재조일본인 여성 비율이 남성

4) 森田福太郎 編(1912) 『釜山要覽』釜山商業會議所, p.10

을 추월하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산에 거주한 재조일본인의 인구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1910년 23,900명(남 1만2539명, 여 1만1361명), 1915년 29,890명(남 1만 5355명, 여 1만 4535명), 1920년 33,085명(남 1만7023명, 여 1만6062명), 1925년 39,756명(남 2만105명, 여 1만9651명), 1930년 44,273명(남 2만2269명, 여 2만2004명), 1935년 56,512명(남 2만9548명, 여 2만6964명), 1942년 61,436명(남 2만9558명, 여 3만1878명)으로 되어 있듯이,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전후부터이며, 이후 1940년 전후에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을 추월한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재조일본인의 본적지를 살펴보면, 1896년 11,854명(나가사키 3,587명, 야마구치 3,294명, 오이타 970명, 후쿠오카 646명, 구마모토 460명, 오사카 427명), 1906년 77,912명(야마구치 13,251명, 나가사키 8,542명, 후쿠오카 5,842명, 오이타 5,436명, 히로시마 4,176명, 구마모토 4,164명, 오사카 3,772명), 1912년 25,641명(남 14,235명, 여 11,406명), 야마구치 4,766명(남 2,519명, 여 2,247명), 나가사키 3,229명(남 1,751명, 여 1,478명), 후쿠오카 2,031명(남 1,098명, 여 933명), 히로시마 1,918명(남 1,047명, 여 871명)과 같이,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대 초기에는 서일본 지역의 나가사키로부터의 인구 이동이 많았던 반면, 한일합병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시모노세키를 포함한 야마구치 현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일본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 및 여성 비율의 증가는 당시 부산 거주 일본인의 직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30년도 당시 부산의 ‘接客업’ 종사자 인구 및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관업주/하숙업주 183명(남 116명, 여 67명), 요리점/음식점/대석업/포줏집 업주 1035명(남 562명, 여 473명), 여관/요리점/음식점/대석업 지배인/유객꾼 818명(남 295명, 여 523명), 요리인 417명(남 389명, 여 28명), 예기(기생) 141명(남 0명, 여 141명), 창기 405명(남 0명, 여 405명), 여관/하숙집/요리점/음식점 등의 여종업원/급사 1,072명(남 105명, 여 967명), 목욕탕 업주/사용인 125명(남 73명, 여 52명), 이발사/머리손질사/미용사 412명(남 276명, 여 136명)으로 되어 있듯이, 1930년 당시의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재조일본인 여성의 인구가 2만 2004명(총 인구 4만 4273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20퍼센트에 가까운 여성이 ‘接客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부산의 지역신문에 게재된 카페 및 유곽 관련 기사를 통해, 기존의

5) 홍연진(2007) 「부관연락선과 부산부 일본인」 『부관연락선과 부산 : 식민도시 부산과 민족 이동』 논형, p.41

6) 조선총독부(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제7권 경상남도』 조선총독부, pp.212-213

유곽과 후발주자로 부산의 유흥문화에 새롭게 뛰어든 카페(모더니즘)의 의미와 수적 변화를 추적해 보도록 하자.

부산 미도리마치(緑町, 녹정) 및 마키노시마(牧ノ島, 영도) 유곽의 예창기 수는 2, 3년 전까지는 미도리마치 360명, 마키노시마 120명, 합계 480명으로 일본 내지 각 도시의 인구 등과 창기 수와 비교하면 부산의 수는 많았기 때문에, 오카모토 부산서장은 당시의 숫자보다 20퍼센트 축소시키는 방침으로 신규영업을 승인하지 않고 폐업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지 않는 방침으로 단속해 온 결과, 3년 후인 올해는 당시보다 60명이 줄은 약 15퍼센트에 가까운 수치까지 다달았다. 이것은 예창기의 요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유곽의 폐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sup>7)</sup>

위의 기사에서는 1929년 2월에 부산의 유곽에서 종사하고 있는 예창기의 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를 기준으로 ‘2, 3년 전’, 즉 1926년부터 1927년까지의 부산 유곽에 종사하는 예창기는 ‘480명’이었던 반면, 오카모토 부산경찰서장이 부산의 예창기 수가 일본 내지 도시의 인구수 대비해서 많은 편이라는 판단 아래 ‘20퍼센트’ 축소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29년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약 60명’이 감소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기사에서는 부산 거주 예창기에 대해서, 업종별·민족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공창 폐지라든지 사창 폐지라며 요란스럽게 의회에까지 이 문제를 들고 들어온 요즘, 부산경찰서의 조사에 의하면 부산부 내에 은밀히 자리를 틀고 영업을 하는 매춘부는 7월 말 현재의 총인원은 52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예창기로 구분해서 보면, 예기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내지인은 185명, 조선인 11명이며, 내지인 창기는 270명, 조선인 61명이다. 올해 7월 이후 폐업한 예기 25명, 창기 140명, 사망자 2명, 또한 이 밖에 부산 부내의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작부 및 종업원 수는 600명을 돌파할 것이다.<sup>8)</sup>

위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29년 8월에 부산 유곽에 종사하고 있는 예창기 수는 예기 일본인 185명, 조선인 11명이고, 창기의 경우에는 일본인 270명, 조선인 61명이며, 폐업 예기 25명, 창기 140명, 사망 2명, 그리고 카페 등 음식점 종업원의 수가 약 600명을 돌파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오카모토 부산경찰서장의 예창기 ‘20퍼센트’ 축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1930년 전후부터는 부산의 카페 등에 종사하고 있는 웨이트리스도 성병검사(건강진단)

7) (1929.2.8.)「廢娼論者の喜びそうな話 釜山署の制限策から娼妓の数が減て来た」『朝鮮時報』  
 8) (1929.8.5.)「女給、仲居の数 約六百名に達す 娼妓は内鮮人三百卅名 釜山署で調査の結果」『朝鮮時報』

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다.

미나미하마(南浜) 일대의 예기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부산경찰서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미도리마치 대좌부 영업자 창기 및 부내 카페의 여급 및 영업자 총 2,364명에 대해서 상부 건강검진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시 및 장소

6일 오전 10시 미도리마치 유곽 사무소, 창기 330명, 종업원 외 211명

8일 상동 부산경찰서 내, 요리점 및 음식점 경영자, 종업원 441명

9일 상동 부산경찰서 내, 요리점 및 음식점 경영자, 종업원 463명

10일 정오 마키노시마 유곽 사무소, 창기 90명, 종업원 외 261명

11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서 내, 요리점 및 음식점 경영자 외 563명<sup>9)</sup>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한 카페는 부산의 유흥문화에서 보면 후발 주자이지만, 카페의 웨이트리스(여급)를 성병검사(건강진단)에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카페가 부산에 진출하기 시작한 초기와는 그 사회적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1930년 전후로 부산의 카페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4. 『관문매석신문』과 부산 유흥문화 표상

마지막으로, 서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발행되어 부산으로 배포된 『관문매석신문』은 부산의 유곽 및 카페 등과 같은 유흥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관문매석신문』의 조선 지역판 <남선에서><sup>10)</sup>에 실린 카페 관련 기사에 주목해 보면, 동 신문에서는 1931년 9월 26일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카페 전망기’라는 특집 연재 기사를 실고 있다. 특히, 주로 부산 경남 소식을 알리는 조선 지역판 <남선에서>는 단순히 부산의 카페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 소재의 카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광고 게재하면서 조선에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9) (1930.12.6.)「二千三百余名の健康診断 釜山署が女給、仲居、娼妓」『朝鮮時報』

10) 임상민(2020)「일제강점기 서일본 지역신문과 부산 표상-『관문매석신문』의 조선 <지역판>을 중심으로-」『동북아문화연구』제65집, pp.412-413. 서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발행되어 조선으로 배포된 『관문매석신문』의 조선 지역판 <남선에서>에 실린 카페 관련 기사 목록은 동 논문을 참조



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아래 기사에서는 부산의 카페 현황과 유흥문화로서의 카페의 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부산은 카페광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카페 출입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이와 비교하면 미나미하마의 화류계는 한산 그 자체이다. (중략)팁 10관(엔스케) 정도 챙겨주면,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성적 매력을 다분히 가진 쾌활하고 젊은 웨이트리스와 값싼 여왕게임이 가능해진다.11)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931년도의 부산은 ‘카페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고, 특히 기존 화류계 등의 유흥문화, 즉 유곽의 손님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산의 카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면, 부산 카페의 ‘제왕(王者)’으로 평가받고 있는 ‘호양헌’과 ‘미카도’는 각각 1909년과 1914년에 영업을 시작했고, ‘카페 런던’은 창업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10년대로 추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1920년대 이전부터 부산에는 카페 문화가 존재했다. 현재, 조선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업한 카페는 1911년에 현재의 남대문로 3가에서 문을 연 ‘타이거’로 소개되고 있지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1909년에 개업한 부산의 ‘호양헌’이 2년 정도 빠르다.

본래, 카페의 기원은 19세기 서유럽에서 예술의 향유와 사교를 목적으로 형성된 대중의 문화공간이었던 반면, 20세기에 일본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팁과 에로틱 서비스 등과 같이, 여급과 남성 고객과의 성애화된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재창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 전후에 후발주자로 부산의 유흥문화에 뛰어든 카페는 기존의 유흥문화를 대표하는 유곽과 대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페가 유곽의 손님을 쟁탈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를 들면, 위의 기사에서는 ‘팁 10관(엔스케)’으로 카페의 웨이트리스와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왕게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왕게임’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임이었을까.

에로, 그로 황금시대, 부산의 카페도 15만 도시(내지인은 6만)로서는 자랑할 만 정도로 그 수가 증가하여 40건에 이르는데, 이들 가게가 고객 쟁탈에 혈안이 되어 키스데이를 거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노드로데이를 실행하여 맹렬한 에로 발산을 하며 호색꾼에서 부터 입술이 누런 음탕 패거리까지를 빨아들이려 하는 엄청난 기세인데, 그 중에는 이슬이슬한

11) (1931.9.26.)「カフェー展望記(1)-旧態を守る花街に背を向け ネオンサインに胸を踊らす群群群」『関門毎夕新聞』

서비스를 연출하는 경우도 있고 팀에 따라서는 영도와 동래, 해운대까지도 동반하는 등, 오늘날 부산의 카페는 풍기가 문란해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서도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sup>12)</sup>

위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후발주자로 뛰어든 카페는 기존의 유곽 손님을 쟁탈해 오기 위해, 유곽과 유사한 음란 서비스(키스데이, 노드로데이)는 물론이고, 당시 유곽에서는 불가능했던 손님과 동반 외출 등의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붉은 불빛 푸른 불빛... 카페 진출에 부산의 화류계는 구태한 모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근대인의 취향에 순응하여 최근에 부산 미도리마치유곽조합 및 동래온천번권에서는 연회 댄스를 개시하고 모던정책을 펼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부산 미나미하마번권에서는 샴시센이 최고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깨달은 것인지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 분야의 권위로 평가받고 있는 도쿄무도회의 구제 다케히코(久世武彦) 씨를 초빙해서 미나미하마 연구장에서 연회댄스에 대한 단기속성 강습을 개최하기로 했다.<sup>13)</sup>

위의 기사에서는 카페 진출로 인해 부산 ‘화류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근대와 모더니즘, 그리고 새로움으로서의 카페와 ‘구태’로서의 유곽이 대비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 미도리마치유곽조합과 동래온천번권에서는 이와 같은 동시대의 모더니즘 기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도쿄무도회에서 연회댄스의 권위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등, 근대를 상징하는 카페의 재즈음악과 춤에 대항하기 위한 이른바 모던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도입하기 시작한다.

다만, 당시 시모노세키에서 발행된 『관문매석신문』의 카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동 신문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식민지 외지인 부산 카페의 매력 및 유곽과의 차별화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본의 카페 문화와도 비교하면서 식민지 부산 유흥문화의 전근대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곳의 특징은 우피에서 마시는 손님을 미쓰와로 빨아들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 접대부업으로 사업을 번창시킨 주인 마담이 세운 계획으로는 재미있지만, 카페 손님과 게이샤를 상대로 하는 손님을 같은 레벨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카페 분위기는 전무하다. 넓디 넓은 공간 속에서 칵테일이라도 마시는 듯한 구식의 느낌을 준다. (중략)

12) (1931.8.30.)「釜山のカフェー お客争奪に凄いサービス戦展開」『関門毎夕新聞』

13) (1931.10.6.)「近代人の趣向に順応して釜山券番でもお座敷ダンス」『関門毎夕新聞』

최근 얼마 전에 후쿠오카의 유흥가인 나카스로부터 진군해 온 S코가 말하기를 “부산의 손님은 저급하고 인색해요”라고 한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sup>14)</sup>

위의 기사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피’는 영업 방식의 측면에서 카페에 온 손님을 매춘 가게로 연결시키는 불법성을 띠고 있고, 또한 카페 손님과 유곽의 손님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이른바 ‘시대착오적’이고 ‘구식의 느낌’을 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산 카페에 대한 비문명과 전근대성에 대한 지적은 ‘우피’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부산 카페에서 일하는 여급들은 에로틱 서비스의 합법성과 불법성의 경계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변과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호와 비보호의 경계에 위치한 신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혼종적이고 경계적인 위치에 놓인 여급은 서일본 지역의 독자들에게는 규범과 위반 사이의 자극을 유도하는 신체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이국적인 매력을 수신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일본 지역의 여급 및 사업가의 적극적인 부산 진출 등을 통해, 부산과 서일본 지역의 문명과 비문명, 그리고 근대와 전근대가 적극적으로 충돌교섭하면서 식민도시 부산의 카페 문화가 변용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는 부산과 서일본 지역에서는 인적, 물적, 지적 정보들이 상호교섭적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당시 부산부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진행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30년 전후에 부산진역 일대가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이에 따라 부산의 ‘상공지역’ 역시 이곳으로 집중하는 등, 도시의 재편과 이에 따른 서일본 지역 요정 사업가의 부산 진출이 추진된다.

먼저 부산진역 부근을 번영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중인데, 부산진역 부근은 빈터도 많고 시내로서의 모양새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유지들 사이에서는 동 방면에 각 분야의 상점 이전을 유치하는 방편으로써 수정권역을 이용해서 요정, 권번 설치를 기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조선인 자체의 교육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풍기상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듯하지만, 요정 건설 예정지는 수정권역의 남쪽 계곡을 개발해서 설비할 계획이어서, 여자고등보통학교와는 거리도 충분히 떨어져 있고 교육상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부 번영책의

14) (1931.10.2.)「カフェー展望記 (5)―グロ的なウーピー」『関門毎夕新聞』

1단계로 가까운 기일 내에 구체적 안을 작성해서 요정, 권번의 설치 허가를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부 권번은 미나미하마와 대항은 해도 미나미하마의 번영을 저지하지는 않도록 미나미하마로부터 이전해 오는 사람은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 간문(關門), 기타큐슈(北九州)에 위치하고 있는 요리점 업자의 조선 진출을 중용할 계획으로, 당국에서는 부산 북부 개발을 위해 당연히 허락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5)</sup>

물론, 위의 기사는 카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아니지만, 부산진역 주변을 ‘상공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정권역에 요정 및 권번 설치 계획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기존의 유곽이 존재하는 미나미하마와 대항하기 위해 서일본 지역의 ‘간문(시모노세키와 모지)’과 ‘기타큐슈’의 요리점 업자의 부산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산과 서일본 지역은 지적·인적·물적 이동이 상호 횡단하는 이른바 내셔널과 트랜스내셔널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나오며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 해양도시 부산과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인적·물적 이동과 이민족·이문화 간의 접촉/갈등/교섭의 변용 과정, 특히 1930년 전후의 카페 문화(모더니즘) 수용과 부산 유곽 문화의 변용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으로서의 해양도시 부산은 중앙(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지만 외부 세계와의 접촉의 최전선이며, 중앙과는 다른 독자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국가를 둘러싼 변화가 직격하는 내셔널과 트랜스내셔널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일본 지역에서 발행되어 부산으로 배포된 『관문매석신문』과 부산의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근대 이후 부산의 유곽 및 접객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1930년 전후로 서일본 지역에서 부산으로의 인적 이동을 통해서 이식된 모더니즘, 즉 카페 문화의 수용 과정 속에서 부산의 유곽 문화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고찰했다.

그 결과, 카페가 부산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26년 이후에 부산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부산의 예창기 수를 20퍼센트 삭감해서 유흥문화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서일본 지역의 많은 카페 업자 및 웨이트리스와 모던걸이 부산의 카페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적·물적·지적 문화 접촉

15) (1931.10.8.)「グレート 釜山の建設に關門、北九州料亭の進出を」『關門毎夕新聞』

및 횡단을 통해, 기존의 유곽에도 모던 댄스 등과 같이 모더니즘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곽의 예창기와는 달리 손님과의 외출이 자유로웠던 카페의 여급(웨이트리스)은 국가의 관리 통제(성병검사 등)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후발주자로 부산의 유흥문화에 뛰어든 카페는 키스데이 및 노드로데이, 그리고 약간의 팀으로 손님과 동반 외출하는 등과 같은 유곽과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통해, 유곽에 적용되고 있었던 규제와 검열을 역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参考文献】**

김형열(2021) 「近代 일본 식민도시의 遊郭 형성과 娼妓業」『일본근대학연구』, p.224  
 森田福太郎 編(1912) 『釜山要覽』釜山商業會議所, p.10  
 염상섭(2008) 『만세전』열림원, pp.173-178  
 임상민(2020) 「일제강점기 서일본 지역신문과 부산 표상-『관문매석신문』의 조선 <지역관>을 중심으로-」『동북아문화연구』제65집, pp.412-413  
 전성현(2018) 「일제강점기 부산 유곽의 실태와 일본군과의 관련성」『역사와 경제』, pp.241-242  
 조선총독부(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제7권 경상남도』조선총독부, pp.212-213  
 홍연진(2007) 「부관연락선과 부산부 일본인」『부관연락선과 부산 : 식민도시 부산과 민족 이동』논형, p.41  
 (1929.2.8.) 「廢娼論者の喜びそうな話 釜山署の制限策から娼妓の数が減て来た」, 『朝鮮時報』  
 (1929.8.5.) 「女給、仲居の数 約六百名に達す 娼妓は内鮮人三百卅名 釜山署で調査の結果」『朝鮮時報』  
 (1930.12.6.) 「二千三百余名の健康診断 釜山署が女給、仲居、娼妓」, 『朝鮮時報』  
 (1931.8.30.) 「釜山のカフェー お客争奪に凄いサービス戦展開」『閔門毎夕新聞』  
 (1931.9.26.) 「카페어展望記(1)-旧態を守る花街に背を向け ネオンサインに胸を踊らす群群」『閔門毎夕新聞』  
 (1931.10.2.) 「카페어展望記(5)-그로적인우어피어」『閔門毎夕新聞』  
 (1931.10.6.) 「近代人の趣向に順応して釜山券番でもお座敷ダンス」『閔門毎夕新聞』  
 (1931.10.8.) 「グレート 釜山の建設に閔門、北九州料亭の進出を」『閔門毎夕新聞』

논문투고일 : 2022년 01월 05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

**<要旨>**


---

**식민도시 부산과 유곽**

- 『관문매석신문』과 부산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

**임상민**

‘지역’으로서의 해양도시 부산은 중앙(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지만 외부 세계와의 접촉의 최전선이며, 중앙과는 다른 독자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국가를 둘러싼 변화가 직격하는 내셔널과 트랜스내셔널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 해양도시 부산과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인적·물적 이동과 이민족·이문화 간의 접촉/갈등/교섭의 변용 과정, 특히 1930년 전후의 카페 문화(모더니즘) 수용과 부산 유곽 문화의 변용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결과, 카페가 부산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26년 이후에 부산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부산의 예창기 수를 20퍼센트 삭감해서 유흥문화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치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서일본 지역의 많은 카페 업자 및 웨이트리스와 모던걸이 부산의 카페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적·물적·지적 문화 접촉 및 횡단을 통해, 기존의 유곽에도 모던 댄스 등과 같이 모더니즘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곽의 예창기와는 달리 손님과의 외출이 자유로웠던 카페의 여급(웨이트리스)은 국가의 관리 통제(성병검사 등)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후발주자로 부산의 유흥문화에 뛰어든 카페는 키스데이 및 노드로데이, 그리고 약간의 팁으로 손님과 동반 외출하는 등과 같은 유곽과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통해, 유곽에 적용되고 있었던 규제와 검열을 역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colonial cities of Busan and Yugwak**

- Focusing on 『Gwanmun Maeseok Newspaper』 and Busan Regional Newspaper -

*Lim, Sang-Min*

Busan, a maritime city as a “region,” is a periphery far from the center (capital), but is at the forefront of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and is an area where national and transnationals coexist, where changes surrounding the country are directly affec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intellectual, human, and material movement centered on the Japanese colonial era colonial maritime city of Busan and Western Japan, and the process of contact/conflict/negotiation between immigrants and foreign cultures, especially cafe culture (modernism) around 1930.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afes began to flow into Busan after 1926, which coincided with the time when Busan’s entertainment culture began to shrink relatively by reducing the number of Busan’s Yechanggi under the authority of the Busan police chief. In addition, through such contact with human, material, and intellectual culture and crossing, new cultures related to modernism, such as modern dance, have begun to be actively introduced in existing rapids.

In addition, unlike Yugwak’s wedding period, the extra pay (waiterless), which was free to go out with customers, was also subject to state management control (sexual disease tests, etc.), but cafes that entered Busan’s entertainment culture as latecomers were controlled by different sales strategies such as Kid Day and Node Day.